

否定副詞 ‘안’과 否定敍述語 ‘않-’의 형성

李 知 英

(서울大 講師)

要約 및 抄錄

現代國語의 否定副詞 ‘안’과 否定敍述語 ‘않-’은 中世國語의 否定副詞 ‘아니’와 否定敍述語 ‘아니흐-’에서 19세기 경 再構造化 되었다. 이들의 재구조화 과정은 獨自的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며 進行되었는데, 이 같은 재구조화 과정의 1차적 原因은 否定敍述語의 다양한 交替現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否定敍述語 ‘아니흐-’의 再構造化 過程은 2段階로 나뉜다. 1段階의 재구조화는 ‘아니흐-’가 ‘안흐-’로 變化하는 단계로서 18세기 말에 시작된다. 이 재구조화의 영향으로 19세기 말에 否定副詞 ‘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안’의 재구조화가 獨自的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構文의 性格에 따라 否定副詞 ‘안’의 出現 時期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段階의 재구조화는 19世紀에 일어나는 ‘안흐-’에서 ‘않-’으로의 變化이다. 이것은 單一語의 재구조화에 類推된 것으로서 ‘안흐-’가 緊密合成語로 인식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핵심어 : 否定敍述語, 否定副詞, 交替現象, 類推, 緊密合成語, 再構造化

I. 序 論

국어의 否定文은 否定副詞와 부정의 대상이 되는 서술어의 위치에 따라 單型否定文과 長型否定文으로 나뉜다. 이러한 부정문의 두 유형은 中世국어 이래로 現代국어에 이르기까지 變化가 없다. 다만 否定文을 구성하는 두 要素인 否定副詞와 否定敍述語는 中世국어의 ‘아니’와 ‘아니흐-’에서 각각 再構造化되어 現代국어에서는 ‘안’과 ‘않-’의 形態로 나타난다.

否定副詞 ‘아니’와 ‘ㅎ-’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合成語 ‘아니ㅎ-’가 ‘않-’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니ㅎ-’에 포함된 부정부사 ‘아니’의 形態 變化이다. 이러한 부정부사의 형태 변화 과정이 ‘않-’의 형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ㅎ-’에서 ‘않-’으로의 형태 변화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ㅎ-’의 문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ㅎ-’는 선·후행의 音韻 環境에 따라 탈락, 축약 등을 겪는데, 이는 ‘ㅎ-’의 형식성을 드러내 주는 현상으로 많이 지적되어 왔다. ‘아니ㅎ-’에서 ‘않-’으로의 형태 변화에서 ‘ㅎ-’의 이 같은 형식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ㅎ-’의 ‘ㅎ-’는 비록 單語 内部的 것이라 하더라도 ‘ㅎ-’의 성격을 유지하는 반면, ‘않-’의 ‘ㅎ’은 ‘ㅎ-’에서 변화된 것이긴 하나 이미 ‘ㅎ-’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語幹末 音韻으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아니ㅎ-’에서 ‘않-’으로의 通時的 變化 樣相을 살피는 과정에서 ‘ㅎ-’가 ‘ㅎ’으로 변화하는 그 시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니ㅎ-’에서 ‘않-’에 이르는 형태 변화 과정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本稿는 먼저 ‘아니ㅎ-’를 구성하는 두 요소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즉 부정부사 ‘아니’에서 ‘안’이 형성되는 시기와 ‘ㅎ-’가 敘述語로서의 성격을 잃고 ‘ㅎ’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를 살필 것이다. 그 다음 개별적으로 고찰한 앞의 두 변화 과정을 統合的으로 고찰함으로써 부정부사 ‘안’과 부정서술어 ‘않-’의 再構造化 過程을 밝힐 것이다.

II. 부정부사 ‘아니’와 부정서술어 ‘아니ㅎ-’의 形態 變化 樣相

1. 부정부사 ‘아니’의 形態 變化 樣相

中世國語의 부정부사 ‘아니’는 現代國語까지도 그 형태가 유지되지만, 통시적 과정 속에서 각 시기의 표기 양상에 따른 變異 形態도 보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국어에는 이전 시기에 없던 형태 ‘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정서술어 ‘아니ㅎ-’가 부정부사 ‘아니’와 ‘ㅎ-’의 결합에 의한 合成語이므로 부정부사 ‘아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는 부정서술어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나 일단 否定副詞만의 형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單型否定文의 예만을 보도록 하자.

- (1) ㄱ. 그 썩리 널오더 아니 가리니 바불 이에 보내쇼셔 호야 善友와 어우러 먹고 (『月釋』 22:54ㄴ-55ㄱ)
- ㄱ'. 남의 물건얼 비러 쓰되 결단 노도록 으니 돌녀보니지 못호며(凡借人物 不可損壞不還) (『女小學』 2:37ㄱ)
- ㄴ. 대더 광좌의 시약청 비설치 아니홈이 큰 죄 안이 되엇거늘 (『明義』 卷首 上:32ㄴ-33ㄱ)
- ㄴ'. 이 사름의 혼이 몸에 붓트며 으니 붓트물 나는 아지 못호나 하남은 알으시니라 (『예수성교전서』 ㄴ코린돏후서 12:3절)
- ㄷ. 스중드려 안니 니르시고 혼 자 풀 구피라 펴 쓰이에 도리턴에 가샤 (『地藏』 ㄱ上 2ㄱ)1)
- ㄷ. 므옴에 시집 안 가기로 밍세호야 몸 가지기를 옥긔치 호논디 (<독립신문> 2권 56호, 논설)
- ㄷ'. 그 올흔 령이 날마당 더의 은 된 일을 슈심호고 (『예수성교전서』 ㄴ베드로후서 2:8절)

(1ㄱ)은 中世國語의 예로서 ‘아니’의 예이다. 單型否定文에 쓰인 ‘아니’는 現代國語까지도 이어지는 형태이다. (1ㄴ)의 ‘안이’와 (1ㄷ)의 ‘안니’는 18세기의 예로서 각각 ‘아니’의 過度 分綴과 過度 中綴이다. (1ㄷ)은 ‘안’의 예로서 19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9세기 이후 몇몇 특정 문헌에서는 ‘ㅏ’가 ‘ㅑ’로 역표기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데,²⁾ 이러한 경향에 따라 (1ㄱ)의 ‘으니’, (1ㄴ)의 ‘은이’, (1ㄷ)의 ‘은’이 나타난다.

이처럼 否定副詞 ‘아니’가 ‘안’으로 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에는 위의 예들과

1) ‘아니’의 다른 형태들과 달리 ‘안니’의 ‘ㅏ’가 ‘ㅑ’로 역표기 된 ‘으니’는 長型否定文에서만 나타난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호여 통곡지 으니 호고 (『예수성교전서』 ㄴ고린도전서 5:2절)

2) ‘ㅏ’가 ‘ㅑ’로 역표기 되는 현상이 두드러진 문헌은 주로 19세기의 것으로서 『閨閣叢書』, 『예수성교전서』, 『女小學』이 해당된다. 이후 이러한 역표기 현상은 20세기의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몇몇 신소설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같은 다양한 異表記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니’의 이러한 형태 변화 과정 혹은 異表記들이 구문의 특성에 따라 그 변화의 시기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위의 (1)에서 單型否定文의 예인 ‘안이’나 ‘안니’는 18세기의 예이지만, 長型否定文과 ‘X 아니 ㅎ-’ 구문에서는 16세기부터 이러한 예들이 발견된다.³⁾ 單型否定文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18세기의 일이다.

- (2) ㄱ. 브세 들어 돌고 만난 거술 ㄴ초고 텅의 올라 안부를 묻조오니 父母
| 시름 안이^ㄹ며 妻子 | 원탄 안이^ㄹ놋다 (『小學』 76:92 ㄱ)
 ㄴ. 그 물을 策^ㄹ야 곶오디 敢히 後^ㄹ는 줄이 아니라 물이 나사가디 안
이홈이라 ㅎ니라 (『論語』 72:8 ㄴ)
 ㄷ. 그 엄미 오오로 신을 내디 몬^ㄹ더니 안이 오라 명종^ㄹ야 녀시 무간
다옥게 찌러디엇거를 (『地藏』 11:9 ㄷ)
 ㄹ. 가스 사르미게 림^ㄹ야셔도 나랏 법으란 형티 안니코 (『장수』 765 ㄹ)
 ㄹ. 그 부터 목숨이 늑만집이러신이 출가 안니^ㄹ야 계사 쇼국왕이 도야
계시더니 (『地藏』 11:24 ㄹ)

3) 본고는 否定敍述語가 보여 주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否定文을 單型否定文, ‘X 아니 ㅎ-’ 구문, 長型否定文의 셋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單型否定文과 長型否定文은 否定副詞의 위치, 補文素의 존재 유무와 관련된 구분이라는 점에서 否定文에 관한 논의의 일반적인 용어와 유사하다. 다만 單型否定文의 경우 서술어가 ‘ㅎ-’가 아닌 경우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X 아니 ㅎ-’ 구문이라 한 것은 否定의 補文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單型否定文과 유사하지만, 서술어가 ‘ㅎ-’인 구문을 가리킨다. 이 구문은 ‘N 아니^ㄹ’, ‘S 아니^ㄹ’와 같은 구문을 포함하는데, 이 구문을 否定副詞에 의해서 어기 분리가 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單型否定文과 유사한 구문이 될 것이고, ‘X’와 ‘아니’ 사이에 ‘ㅎ디’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長型否定文과 유사한 구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구문은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중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에서 ‘ㅎ디’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통시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이현희, 1986 : 29 ; 류광식, 1990 : 25~56), 동일한 구성에서 ‘ㅎ-’의 어기가 1음절이거나 ‘X^ㄹ’가 형용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ㅎ디’의 생략을 인정하고 그 외의 ‘X 아니 ㅎ-’는 어기분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허철구, 1997 : 150~6, 160~4).

- ㄴ. 스중드려 안니 니르시고 혼 자 풀 구피라 펼 쓰이에 도리턴에 가사
(『地藏』 ㄱ 2ㄱ)

(2ㄱ, ㄴ)의 예는 각각 ‘X 아니 ㅎ-’ 구문과 長型否定文에 나타난 ‘안이 ㅎ-’의 예로서 16세기 말의 예이다. 單型否定文에서 ‘안이’가 나타나는 것은 (2ㄷ)과 같이 18세기 중반의 일이다. (2ㄷ)은 ‘아니’의 過度中綴表記인 ‘안니’가 長型否定文에 나타나는 예로서 16세기 경에 보인다. 그러나 (2ㄱ, ㄴ)에서 보듯이 ‘X 아니 ㅎ-’ 구문이나 單型否定文에서 이表記가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중반의 일이다.

부정부사 ‘안’이 역시 위의 예처럼 장형부정문에서 그 端初를 확인할 수 있다.

- (3) ㄱ. 금오 옥퇴 닷고 날아 년광을 지촉느니 닥자니코 복 밧으며 심그잔코
삭시 날가 (『奠說』 勸善曲 7ㄱ)
ㄴ. 빈병 걸인 구제 안코 제 권속만 즐겨흔 죄 삼악도의 고상타가 다형
이 인신 되나 (『奠說』 勸善曲 7ㄱ)
ㄷ. 경무청 순검들이 근일에는 도적 잡기에는 힘을 안 쓰는가 보더라
(〈독립신문〉 1권 76호, 잡보)
ㄹ. 니 날마당 너희과 합씨 성던에 이슬 적에는 손을 놀니지 안아스나
이제는 너희 씨니 어두은 권세라 ㅎ더라 (『예수성교전서』 ㄴ누가복음
22:53절)
ㄴ. 장춇 나라히 엇지 될지 외국셔 무슴 일을 ㅎ려는지 도모지 생각도
안코 (〈협성회회보〉 1권 5호, 논설)

(3ㄱ)의 ‘심그잔코’는 ‘심그지 안코’에서 ‘-지’와 ‘안ㅎ-’ 혹은 ‘않-’이 縮約된 형태이다. ‘X 아니 ㅎ-’의 구문인 (3ㄴ)의 경우에도 否定敍述語는 ‘안ㅎ-’ 혹은 ‘않-’으로 나타나 있어 (3ㄱ, ㄴ)의 예를 통해 否定副詞가 ‘안’으로 나타나는 예는 비록 부정서술어 ‘아니ㅎ-’의 구성 성분이기는 하지만, 18세기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分명한 單型否定文에서 부정부사 ‘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ㄷ)과 같이 19세기 말의 일이다. 이 시기에는 (3ㄹ, ㄴ)과 같이 長型否定文에서나 ‘X 아니 ㅎ-’에서도 부정서술어 ‘않-’ 내부의 부정부사는 ‘안’

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사의 형태 변화 양상을 單型否定文, ‘X 아니 ㅎ-’, 長型否定文으로 나누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⁴⁾ 이 표를 통해 부정부사의 形態 變化는 單型否定文이 아니라 ‘X 아니 ㅎ-’ 구문과 長型否定文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구문 유형에 따른 否定副詞의 形態 變化 樣相⁵⁾

시 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신소설
유 형	단형	806	347	489	233	741	597	811
	X 아니 ㅎ-	683	472	547	559	986	845	522
아니	장형	7046	3648	4249	5571	6668	6377	2278
	단형	0	0	0	2	53	5	1691
	X 아니 ㅎ-	0	2	0	0	65	5	871
안	장형	0	3	9	1	388	28	2714
	단형	0	0	0	6	5	1	38
	X 아니 ㅎ-	0	0	0	4	9	1	18
안니	장형	0	1	2	25	118	32	69
	단형	0	0	0	0	99	69	223
	X 아니 ㅎ-	0	0	0	2	201	12	37
안	장형	0	0	0	18	2709	1330	1682
	단형	0	0	0	0	0	1	4
	X 아니 ㅎ-	0	0	0	0	0	1	1
기타	장형	0	0	0	0	0	3	0

4) 아래의 표는 ‘ㅏ’가 ‘ㅑ’로 역표기 된 형태들을 모두 원래의 형태에 포함시켜 제시한 것이다. 즉 ‘으니’는 ‘아니’에, ‘은이’는 ‘안이’에, ‘은니’는 ‘안니’에, ‘은’은 ‘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否定敍述語 ‘않-’의 예들도 否定副詞의 형태를 중시하여 모두 ‘안’에 포함시켰다. 이미 再構造化가 완성된 형태 ‘않-’을 부정부사 ‘아니’의 形態 變化 樣相을 논의하는 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의 변화 양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들을 제외한다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通時的 變化를 살피려는 본고의 목적에 충실하여 부정서술어 ‘않-’의 下位 成分인 ‘안’을 부정부사 ‘안’과 동일한 부류로 묶기로 한다.

5) 본고에서 제시되는 통계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국어사 자료 말뭉치>에 기반한 것이다. 현재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國語史 資料 말뭉치로는 이외에도 장서각 소장의 古典小說類가 있으나 이는 統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고

이 <표 1>에서 ‘기타’는 ‘안으, 안의’나 ‘안히’와 같이 20세기와 新小説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부사의 예를 가리킨다.⁶⁾ 그런데 이 중 ‘안히’는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4) ㄱ. 이거시 뉘 권능이며 이거슬 뉘 안히 깃버하리요 (<신학월보> 4 : 208)

ㄴ. 또 우리로 하야곰 공문 제자를 짓고자 하야도 하나님은 반다시 하나님 도를 멸하고자 안히 하사 제 몸만 착하고자 하난 자를 응당 용납지 안히하시리니 (<신학월보> 3 : 399)

위의 예와 같이 부정부사가 ‘안히’로 나타나는 예들은 20세기의 문헌과 신소설에서 몇 예를 볼 수 있다. (4ㄱ)은 單型否定文에서 부정부사가 ‘안히’로 나타난 예이다. (4ㄴ)에서는 ‘멸하고자 안히 하사’와 같이 ‘X 아니 ㅎ-’ 구문에 나타난 ‘안히’의 예와 ‘용납지 안히하시리니’와 같이 長型否定文에서 ‘안히 하-’가 나타난 예를 볼 수 있다.

‘안히’는 비록 그 예가 극히 드물지만, 否定文의 구문 유형에 관계없이 각 구문 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형태는 ‘안이’나 ‘안니’와 같은 해당 시기의 표기 樣相에 따라 나타난 예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형태는 부정부사가 ‘안’으로 정착된 이후의 예인 데다가 후대에 이를 反映하는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시기에 나타난 一時的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히’의 ‘ㅎ’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원래의 단어에 ‘ㅎ’이 없다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재음소화 표기에 의한 형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의 통계는 자료가 더 보완되거나 수정되면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통계에 기반한 연구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하나이긴 하나 본고의 통계가 통시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안으, 안의’의 예는 신소설에서 나타난 일시적 표기인데, 단순한 誤記로 볼 가능성이 높다. 전체 자료에서 신소설에서만, 그것도 단 2예만 나타난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형태는 否定副詞 ‘아니’의 통시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의 예는 해당 예를 보인 것이다.

ㄱ. 술도 안으 밋어 먹은 터에 식로히 담비 달나기 겸연ㅎ야 (『철세계』 58)

ㄴ. 가자니 가기 슬코 안의 간든 못ㅎ리라 (『모란병』 35)

近代國語 시기에 ‘값-, 높-’의 終聲 ‘ㅍ’이 ‘ㅂ’과 ‘ㅎ’으로 재음소화하여 ‘값하, 높하’ 등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히’의 경우 그 선대형이 ‘아니’이므로 이러한 재음소화 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히’가 나타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른 가능성으로 ‘안히’의 ‘ㅎ’이 否定敍述語 ‘않-’에서 派生된 부사여서 ‘않--이’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진 派生副詞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파생부사를 형성할 때 종성의 ‘ㅎ’이 末音節에 반영되어 ‘-히’로 나타나는 예들이 있는데, ‘안히’도 이러한 인식 하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表記로 볼 수 있다. 즉 ‘옳-, 많-’의 파생부사가 ‘옳히, 만히’로 나타나는 것처럼 ‘않-’에서 ‘안히’가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가 비록 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것은 아니다. 접미사 ‘-이’에 의한 파생부사 형성은 形容詞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⁷⁾

마지막 가능성은 過度校訂이다. 母音間의 ‘ㅎ’은 탈락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 많-’에서 파생된 부사 ‘만히’가 근대국어 시기에 ‘만이’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향의 일부이다. 이러한 경향과 유사하게 ‘아니’의 過度中綴 表記인 ‘안이’를 인식했다면, 이에 대한 過度校訂의 결과로 ‘안히’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그러나 이 또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안히’가 ‘anyi’에서 過度校訂된 것이라고 할 때, ‘안히’가 종성에 ‘ㅎ’을 가진 형용사에서 파생된 다른 파생부사들과 동격의 것이라고 화자들이 인식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히’가 나타나게 된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 중 두 번째

7) 필자는 한 심사자에게서 否定敍述語 ‘안히-’ 혹은 ‘않-’이 동사의 성격 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안히-’ 혹은 ‘않-’이 語根가 되어 ‘안히’가 형성될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 받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否定敍述語는 長型否定文의 母文소에 선행하는 서술어가 동사면 동사로, 형용사면 형용사로 성격 지워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否定敍述語, 즉 補助用言으로서의 ‘안히-’ 혹은 ‘않-’이 단어파생과정에 어기로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안히-’ 혹은 ‘않-’이 형용사에 대한 長型否定文에 쓰일 경우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사파생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否定副詞 ‘안히’를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본다.

8) 過度校訂의 가능성은 두 심사자에게 지적받은 바를 반영한 것이다.

와 세 번째가 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히’의 出現은 통시적인 변화의 흐름에 附屬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낸 것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만 ‘안히’의 出現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부정부사와 부정서술어의 相關的 關係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否定敍述語 ‘아니히-’의 形成이 부정부사에서 부정서술어로의 영향 관계를 보여 준다면, 否定副詞 ‘안’이 ‘X 아니 히-’ 구문이나 長型否定文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나 ‘안히’의 出現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그 逆의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 부정서술어 ‘아니히-’의 形態 變化 樣相

부정서술어 ‘아니히-’는 부정부사 ‘아니’와 ‘히-’의 結合으로 形成된 合成語이다. ‘아니히-’는 ‘히-’의 형식성으로 인해 다양한 交替 樣相을 보이는데, 이러한 교체 양상이 ‘아니히-’가 ‘않-’으로 재구조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의 ‘아니히-’는 後行 語尾와 結合할 때 다양한 교체형을 보이는데, 이는 잘 알려져 있듯이 ‘히-’의 形식성으로 인한 것이다.⁹⁾

- (5) ㄱ. 한 根에 노라 𪎐간도 𪎐디 아닌 𪎐 돌 아롤 디니(遊戲諸根히야 曾不間斷이니) (『圓覺』 下 3-1:48ㄱ)
- ㄱ'. 데 𪎐갓 性 𪎐디 아니히 𪎐 智를 브트샤 信體를 세샤(彼依自性不動知히샤 以立信體히샤) (『法華』 2:160ㄴ)
- ㄴ. 時急急히 자바 𪎐되여 잇구믄 從티 아니커 𪎐 𪎐되여 𪎐리샤물 가줄 비니라 (『月釋』 ㄲ3:17ㄱ)
- ㄴ'. 기브로 𪎐회환 사르믄 주려 죽디 아니히거 𪎐 선비 𪎐갓 스니는 모물 해 그르 밍 𪎐눓다(紈袴不餓死 儒冠多誤身) (『杜初』 ㄲ9:1ㄱ)

9) 이현희(1994 : 62~3)에서는 이러한 ‘아니히-’의 다양한 교체 양상의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아니히-’를 기본형으로 하여 세 가지의 수의적 교체형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수의적 교체형은 ‘ㄱ, ㄴ’ 등 자음 어미 앞에서의 ‘아닐-’, 선어말어미 ‘-느-’ 앞에서의 ‘아닐-’, 媒介母音과 一般母音으로 시작하는 母音語尾 앞에서의 ‘아니-’이다.

ㄷ. 靜室와 衆에 處홈과 엇데 서르 어기디 아니리오(靜室와 處衆과 處 不相違) (『圓覺』 ㄱ2-2:18ㄴ)

ㄷ'. 봄 비체 엇데 서르 보디 아니호리오 여러 샷기 도로혀 조가굴 아
 낫다(春色豈相訪 衆難還識機) (『杜初』 ㄱ7:16ㄱ)

(5ㄱ)은 ‘아니호-’가 선어말어미 ‘-느-’와 결합할 때 ‘아니호-’의 ‘호-’에서 ‘.’가 탈락된 후 ‘ㅎ’이 音節末에서 ‘ㄷ’으로 中和되고 이것이 다시 후행 선어말어미 ‘-느-’의 ‘ㄴ’에 同化되어 ‘아닌느’으로 나타난 예이다. 동일한 환경이라 해도 (5ㄱ')과 같이 ‘아니호-’의 ‘호-’가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5ㄴ)은 ‘아니호-’의 ‘호-’에서 ‘.’가 탈락된 후 후행어미의 초성 ‘ㄱ’과 縮約을 일으킨 예이다. 역시 동일한 환경에서 (5ㄴ')과 같이 縮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ㄷ)은 媒介母音을 가진 선어말어미 ‘-으리-’ 앞에서 ‘아니호-’의 ‘호-’ 전체가 탈락된 경우이다. (5ㄷ')은 동일한 음운 환경이라 해도 이러한 ‘호-’ 탈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아니호-’가 보여 주는 교체 현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隨意的인 것이다.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도 그 교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중세국어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아니호-’의 이러한 수의적 교체 현상은 ‘아니호-’의 内部 緊密性的 변화와 맞물려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16세기부터는 15세기에 보이지 않던 교체상의 몇몇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6) ㄱ. 가빔야온 짐을 되호고 므겨운 짐을 눈화 반만 센 이 잡드디 아닌느
 나라(輕任을 并호고 重任을 分호야 頒白者 | 不提挈이니라) (『小學』 ㄱ2:64ㄴ)

ㄱ'. 즐겨 곱느녀 즐겨 ㄹ르치디 아닛느녀(耐繁敎 不耐繁敎) (『醵老』 上 6ㄴ)

ㄱ''. 煩惱 긋느닌 逆性 | 오 煩惱 내디 아니느닌 順性 | 라 (『禪家』 ㄱ28ㄴ)

ㄴ. 僧堂 여희디 아냐 節介를 디니는다(不離僧堂호야 守節麼아) (『禪家』 ㄱ20ㄴ)

ㄴ'. 사르미 ㄱ긋호나 흐리나 다 일터 아녀 사괴야 아비 거상에 소니
 오디 두서 ㄱ올히 다 오니(淸濁에 無所失호야 父喪致客에 數君이 畢至호니) (『醵小』 ㄱ6:14ㄴ)

- ㄷ. 너른 이를 업시 흐며 심흔 이를 업시 흐면 비화 아는 배 배품에
스뭇디 아닐 더 업스리라(去泰去甚흐면 學之所知 | 施無不達흐리
라) (『小學』 5:108ㄱ)
- ㄷ'. 몬져 갓가으며 저그니를 ㄱ르치고 후에 멀며 크니를 ㄱ르치디 안
니홀 거시 아니니라(非是先傳以近小而後에 不敎以遠大也 | 니라)
(『翻小』 8:40ㄴ)

(6ㄱ, ㄱ')은 ‘아니흐-’가 선어말어미 ‘-느-’와 결합되었을 때 音節末의 ‘ㅎ’이 中和된 ‘ㄷ’이 후행 어미의 초성에 同化되지 않은 예들이다. (6ㄱ')은 ‘아니흐-’의 ‘ㅎ-’ 전체가 脫落된 예이다. 이러한 예는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까지 보이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6ㄴ, ㄴ')의 ‘아냐’와 ‘아녀’는 ‘아니흐-’와 연결어미 ‘-아’의 결합으로서 15세기라면 ‘아니흐야’로 나타났을 예이지만, 16세기부터는 이와 같은 교체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6ㄷ)은 ‘아니흐-’의 ‘ㅎ-’가 媒介母音을 가진 관형사형어미 ‘-을’ 앞에서 탈락되는 예이다. 15세기에도 위의 (6ㄷ)과 같이 媒介母音을 가진 어미 앞에서 ‘아니흐-’의 ‘ㅎ-’가 탈락되는 일이 있었으나 이 예와 같이 관형사형어미 ‘-을’ 앞에서 脫落하는 경우는 없다.¹⁰⁾ 이는 ‘아니흐-’의 ‘ㅎ-’가 脫落되는 환경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띠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否定敘述語 ‘아니흐-’의 교체 현상이 후대로 오면서 점차 다양해지는 현상과 맞물려 18세기 말에는 부정서술어 내부의 ‘아니’가 ‘안’으로 변화된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7) ㄱ. 문즈소권 알음 업시 즈기 력량 싱각잔코 강경종장 시비흐며 명리스
관 비방흐니 (『彙說』 勸善曲 3ㄱ)
- ㄴ. 즈기 형식 싱각잔코 공경심을 닌잔느니 (『彙說』 勸善曲 2ㄴ)
- ㄷ. 內外中間 차즈려면 鐘鼓 소리 들니오나 이러모로 일으오디 소리 形
相 보히단니 (『彙說』 參禪曲 4ㄴ)

10) 15세기에 ‘또 엇데 호오사 河 | 獸의 모듬 아닐 뿌니리오(復何獨河 | 非獸合이 리오) (『永嘉』 下 59ㄱ)’와 같은 예에서 ‘아닐’의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아닐’은 ‘아니+-을’로 분석되는 것으로서 名詞文 否定的 예이다.

(7ㄱ)의 ‘싱각잔코’는 ‘싱각지 안코’에서 축약된 것이다. 이 예에서 否定敍述語는 ‘안ㅎ-’ 혹은 ‘않-’이다. ‘아니ㅎ-’의 ‘ㅎ-’는 어미 ‘-고’ 앞에서 ‘·’가 탈락된 후 縮約될 수 있었으므로 이 예의 ‘안코’가 ‘안ㅎ-’와 ‘-고’의 결합인지 ‘않-’과 ‘-고’의 결합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다. (7ㄴ, ㄷ)의 ‘니잔느니, 보히단니’는 각각 ‘니지 안느니’와 ‘보히디 안니’에서 縮約된 것이다. 이 예들에서 ‘안느니’와 ‘안니’는 ‘않-’과 ‘-니’, ‘-느-’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단정을 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문제가 된다.

(8) ㄱ. 子ㅣ ㅁㄹㅅㅅ터 語호매 脣터 아니논 者는 그 回ㄴ더(子曰 語之而不脣者는 其回也與ㄴ더) (『論栗』 2:49ㄴ)

ㄱ'. 子ㅣ ㅁㄹㅅㅅ터 語호매 脣터 아니ㅎ논 이는 그 回ㄴ더 (『論語』 2:46ㄱ)

ㄴ. 품형읏 선비는 남의 불상이 녀기믈 ㅁㅅ지 아니느니 (『敬信』 78ㄴ)

(8ㄱ)에서 ‘아니논’은 ‘아니ㅎ-’와 ‘-논’의 결합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ㅎ논, 아닌논, 아닌논, 아닛논’과 같이 ‘ㅎ-’가 유지되거나 후행 어미의 初聲에 同化되거나 ‘아니’의 終聲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는 ‘ㅎ-’ 전체가 탈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원문의 16세기 예인 (8ㄱ')에서 ‘아니ㅎ논’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8ㄴ) 역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니ㅎ느니, 아닌느니, 아닌느니, 아닛느니’와 같이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ㅎ-’ 전체가 탈락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교체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긴 하나 16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까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分布上 18세기에는 이러한 예가 가장 많다.

따라서 (8)과 같은 예를 고려한다면, (7ㄴ, ㄷ)의 부정서술어가 ‘않-’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예들은 ‘안ㅎ-’가 ‘-느-’와 결합할 때 ‘ㅎ-’ 전체가 脫落한 예로 볼 가능성도 있고 ‘않-’이 ‘-느-’와 결합할 때 종성 ‘ㅎ’이 脫落한 예로 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안ㅎ-’ 혹은 ‘않-’으로 생각될 수 있는 18세기의 예들이 대부분 『纂說因果曲』의 것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문헌의 예만으로 18세기 말에 ‘않-’이 확립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7)과 같은 예들은 적어도 否定敍述語 内部의 ‘아니’가 ‘안’으로 확립된 예로 볼 수는 있으며, 따라서 ‘안ㅎ-’ 혹은 ‘않-’은 이 시기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否定副詞 ‘안’과 否定敍述語 ‘않-’의 形成 過程

앞의 II장의 논의를 통하여 否定副詞 ‘안’ 및 否定敍述語 ‘안ㅎ-’와 ‘않-’이 出現하는 시기와 각각의 예들을 살폈다. 본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정서술어 ‘않-’과 부정부사 ‘안’의 形成 時期와 過程, 그리고 이와 유사한 再構造化를 겪은 다른 단어들과의 關係를 논의할 것이다.

1. ‘안ㅎ-’와 ‘않-’의 共存 및 ‘않-’의 形成 時期에 대한 검토

앞의 II.2에서 지적하였듯이 18세기 말에는 ‘안ㅎ-’와 ‘않-’이 共存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존의 시기를 거쳐 분명히 ‘않-’의 예로 볼 수 있는 예가 언제부터 出現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를 위해 ‘안ㅎ-’와 ‘않-’의 交替 現象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안ㅎ-’의 ‘ㅎ-’와 ‘않-’의 ‘ㅎ’은 교체상의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中世國語에서 ‘ㅎ-’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ㅎ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現代國語에서는 ‘하야, 해, 했-’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ㅎ-’가 아닌 종성의 ‘ㅎ’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이러한 교체를 보여 주지 않는다.¹¹⁾ 그렇다면 ‘아니ㅎ-’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아니ㅎ야/여’ 혹은 ‘아냐/녀’의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 때를 ‘아니ㅎ-’가 ‘않-’으로 성립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9) ㄱ. 정부에 신칙과 관찰부 훈령이 모도 나라에 시급한 공무이온디 당
초에 눈으로 보지도 안ㅎ야 두서를 분별치 못하니 (<독립신문> 2
권 14호, 잡보)

11) 예를 들어 종성이 ‘ㅎ’인 ‘동-’이 연결어미 ‘-아’와 결합하면 ‘도하’로 나타날 뿐, “도ㅎ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 ㄱ'. 또 었던 사람은 새 일은 다 도치 안아 새 일 중에 도흔 것이 하나
도 업다 하니 (『경향보감』 4 : 205)
- ㄴ. 집은 리쇼스의게 허급지 안흐엿다고 흐엿스니 (<독립신문> 1권
60호, 잡보)
- ㄴ'. 만약 니가 와 말흐지 안아스면 더 죄 업스되 이제는 그 죄를 핑계
치 못흐느니라 (『예수성교전서』 요한복음 15 : 22절)
- ㄷ. 이러치가 안히도 도적이 간간히 잇는디 이런 말들이 잇고야 성안
성 밧의 도적 써문에 인민들이 었지 살닌지 모로갓스니 (<독립신
문> 1권 70호, 잡보)
- ㄷ'. 리홍장은 나라를 팔지 안어도 지물이 유여흐고 (<매일신문> 1권
11호, 외국통신)

(9ㄱ)은 19세기 말의 예로서 ‘안흐-’와 ‘-아’의 결합이 ‘안흐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20세기 초의 예인 (9ㄱ')과 비교될 수 있다. 이 예에서 ‘안아’는 ‘않-’과 ‘-아’의 결합으로서 ‘안흐-’의 ‘흐-’가 본래의 交替 特性을 잃어버리고 ‘ㅎ’이 否定敍述語의 音節末 子音으로서만 존재하는 否定敍述語 ‘않-’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세기 말의 예인 (9ㄴ, ㄴ')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예들은 부정서술어와 先語末語尾 ‘-앗-’이 결합한 예들인데, (9ㄴ)에서는 ‘안흐엿다고’로, (9ㄴ')에서는 ‘안아스면’으로 나타나 있다. 역시 후자의 예에서 ‘흐-’의 교체 특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때의 부정서술어가 ‘않-’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9ㄷ, ㄷ')도 19세기 말의 예로서 否定敍述語와 연결어미 ‘-아도’가 結合한 예인데, (9ㄷ)에서는 ‘안히도’로, (9ㄷ')에서는 ‘안어도’로 나타남으로써 後者에서는 부정서술어 ‘않-’이 확립되었음을 보인다.

이와 같이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부정서술어가 결합한 예를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시기는 ‘안흐-’와 ‘않-’이 共存하던 시기라는 사실과 ‘않-’의 경우 ‘흐-’의 특수한 교체 양상을 드러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정서술어와 ‘아’로 시작하는 語尾의 결합 양상을 좀더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이 결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아니ㅎ-’와 ‘아’로 시작하는 語尾의 結合 樣相¹²⁾

유 형		시 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신소설
아니	장형	가	922	323	338	382	795	811	810
		나	0	68	172	168	140	54	9
		다	0	0	0	0	0	0	0
	X 아니 ㅎ-	가	86	28	33	42	161	95	208
		나	0	8	13	15	5	2	0
		다	0	0	0	0	0	0	0
안	장형	가	0	0	0	0	42	0	1
		나	0	0	0	0	0	0	2
		다	0	0	0	0	67	9	129
	X 아니 ㅎ-	가	0	0	0	0	9	0	2
		나	0	0	0	0	0	0	0
		다	0	0	0	0	5	0	0

가 : ‘ㅎ-’의 교체 특성을 드러내는 유형. (예) 아니ㅎ--+아 → 아니ㅎ야/여, 아니히

나 : ‘ㅎ-’의 교체 특성을 드러내지만, ‘ㅎ-’가 표면상 나타나지 않는 유형.

(예) 아니ㅎ--+아 → 아냐/녀

다 : ‘ㅎ-’의 교체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 유형. (예) 안ㅎ/않--+아>안아/어

<표 2>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否定敍述語 内部의 否定副詞가 ‘아니’인 경우에는 (가)유형 및 (나)유형이 나타나는 반면, ‘안’인 경우에는 (가)유형과 (다)유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前者의 경우는 ‘아니ㅎ야/여, 아니히, 아냐/녀’ 등이 나타나지만, 後者の 경우는 ‘안ㅎ야/여, 안히’ 및 ‘안아/어’ 등이 나타난다. ‘아니ㅎ-’의 경우 15세기부터 新小說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가)유형, 즉 ‘아니ㅎ야/여, 아니히’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나)유형인 ‘아냐/녀’는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이후 減少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서술어 내부의 부정부사가 ‘안’으로 나타나는 경우 19세기에는 (가)유형인 ‘안ㅎ야/여, 안히’와 (다)유형인 ‘안아/어’가 모두 나타나지만, 분포 면에서는 後者が 더 우세하다. 더구나 (가)유형은 20세기부터는

12) <표 2>에서 ‘아니’ 유형은 2장에서 본 바와 같은 ‘안이, 안니, 으니, 으이, 은니’와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단 여기에서 否定敍述語가 ‘안히’를 포함한 예는 제외시켰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히’는 매우 例外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표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같다.

거의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아니^ㅎ-’는 15세기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 온 否定敍述語의 형태라는 점과 19세기부터 ‘안^ㅎ-’와 ‘않-’의 共存이 시작되다가 20세기 이후 ‘않-’의 세력이 더 우세해짐을 알 수 있다.

‘안^ㅎ-’와 ‘않-’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교체 현상은 媒介母音을 가지지 않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媒介母音을 가지지 않는 어미와 결합할 때 ‘아니^ㅎ-’는 縮約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縮約이 수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축약이 불가능한 환경, 즉 ‘-ㄴ-’와 결합한 경우라면 그 교체형은 세 가지 유형이 될 것이다. 첫째는 ‘아니^ㅎ-’의 ‘^ㅎ-’가 유지되는 것이고, 둘째는 ‘^ㅎ-’의 ‘·’가 脫落된 후 終聲이 된 ‘^ㅎ’이 후행 어미의 初聲 ‘ㄴ’에 同化되는 것이며, 셋째는 두 번째와 같은 同化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中和된 終聲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아니^ㅎ-’의 교체 양상과만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交替現象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 ‘않-’의 성립을 ‘안^ㅎ-’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교체 현상은 의미가 있다. 즉 ‘안^ㅎ-’는 ‘-ㄴ-’와 결합할 때, ‘안^ㅎㄴ, 안^ㅎ다’와 같이 나타나겠지만, ‘않-’은 동일한 결합에서 ‘안^ㅎㄴ, 안^ㅎ다’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ㄴ-’는 媒介母音을 가지지 않고 어간과 직접 결합하는 어미이므로 ‘안^ㅎㄴ, 안^ㅎ다’와 같은 예에서 ‘^ㅎ’는 語幹 자체의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예는 ‘안^ㅎ-’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10) ㄱ. 요스이는 경무청에서 이런 일을 슬피지 안^ㅎㄴ지 경무청 관원들과 순검들이 아직도 잠을 찌지 안^ㅎ옛년가 보더라 (<독립신문> 1권 82호, 잡보)

ㄱ'. 경무청에서 이거슬 금^ㅎ지 안^ㅎㄴ지 몰나셔 안 금^ㅎㄴ지 알 슈 업더라 (<독립신문> 1권 57호, 잡보)

ㄴ. 오늘날 돈푼이나 엇어 쓰는 거슬 중히 녀이는 사름은 미구에 죽고 몸이 망^ㅎ고 집안이 결단 나느 거슬 생각지 안^ㅎㄴ 사름들이라 (<독립신문> 1권 74호, 논설)

ㄴ'. 아달을 공경치 안^ㅎㄴ 차는 곳 그 보닌 아밤을 공경치 온으미라 (『예수성교전서』~효한복음 5:23절)

ㄷ. 모로는 빅성들은 다몬 의심과 두려운 생각몬 나 점점 서로 속히

고 서로 히힐 궁리박씨는 나지 안흔느지라 (<독립신문> 2권 61호, 논설)

ㄷ'. 일던에 우리가 왓슬 썩에 그디의 안경을 가져 잣더니 타쳐에 팔너 혼죽 반갑도 보지 안느지라 (<매일신문> 1권 14호, 잡보)

(10ㄱ, ㄴ, ㄷ)의 예는 ‘안흔-’가 ‘-느-’와 결합하여 각각 ‘흔-’가 유지된 형태로 나타난 예들이다. 이 예들은 각각 ‘않-’이 동일한 어미와 결합한 (10ㄱ', ㄴ', ㄷ')의 예와 비교될 수 있다. ‘아니흔-’가 ‘-느-’와 결합될 때 ‘흔-’의 ‘·’가 脫落된 후 ‘ㅎ’이 同化되는 경우와 달리 ‘안흔-’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상정할 수 없다. ‘안흔-’의 경우 ‘흔-’에서 ‘·’가 脫落된다면, 그것은 ‘않-’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19세기부터 ‘아니흔-’의 경우도 이와 같은 同化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10ㄱ', ㄴ', ㄷ')의 예에 나타난 ‘안느지, 안느, 안느지라’는 否定敍述語 ‘않-’이 ‘-느-’와 결합할 때 子音群單純化에 의해 ‘ㅎ’이 脫落된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니흔-’과 ‘-느-’의 결합이 보이는 결합 양상의 통시적 변화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아니흔-’과 ‘-느-’의 結合 樣相¹³⁾

유 형		시 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신소설
아니	장형	가	543	306	390	280	491	631	419
		나1	59	26	64	10	0	0	1
		나2	0	2	4	103	97	53	1
		다1	0	1	4	15	2	0	0
		다2	0	0	0	0	0	0	0
	X 아니 흔-	가	61	50	67	42	170	134	130
		나1	16	7	3	2	0	0	0
		나2	0	0	2	10	8	3	0
		다1	0	2	0	1	0	0	0
		다2	0	0	0	0	0	0	0
안	장형	가	0	0	0	0	19	0	1
		나1	0	0	0	0	0	0	0
		나2	0	0	0	0	0	0	0
		다1	0	0	0	0	0	0	0
		다2	0	0	0	4	369	222	143

안	X 아니 ㅎ-	가	0	0	0	0	23	0	0
		나1	0	0	0	0	0	0	0
		나2	0	0	0	0	0	0	0
		다1	0	0	0	0	0	0	0
		다2	0	0	0	0	30	1	4

가 : ‘ㅎ-’ 유지 유형. (예) 아니ㅎ+-는 → 아니ㅎ는

나1 : ‘ㅎ-’의 ‘·’ 탈락 후 同化가 일어나는 유형. (예) 아니ㅎ+-는 → 아닌는

나2 : ‘ㅎ-’의 ‘·’ 탈락 후 同化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 (예) 아니ㅎ+-는 → 아닌는/아닛는

다1 : ‘ㅎ-’가 탈락되는 유형. (예) 아니ㅎ+-는 → 아니는

다2 : ‘ㅎ’이 탈락되는 유형. (예) 앓+-는 → 안는

위의 <표 3>은 否定敍述語 내부의 否定副詞가 ‘안’인 경우 19세기에는 (가)유형, 즉 ‘-느-’와 결합하여 부정서술어의 ‘ㅎ-’가 유지되는 유형과 (다2) 유형, 즉 ‘-느-’와 결합했을 때 子音群單純化에 의해 종성의 ‘ㅎ’이 탈락되는 유형이 共存하다가 20세기부터 (가)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느-’와 결합할 때 ‘아니ㅎ-’의 ‘ㅎ-’ 전체가 탈락하는 현상이 16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까지 보이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아니’의 (다1)유형의 분포에서 알 수 있으며, ‘아니ㅎ-’의 ‘ㅎ-’에서 ‘·’가 탈락된 후의 ‘ㅎ’이 後行 語尾의 초성에 同化되는 현상도 19세기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19세기는 ‘안ㅎ-’와 ‘앓-’의 공존 시기이고 20세기부터는 ‘앓-’이 절대적으로 우세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안’과 ‘앓-’의 再構造化 過程에 대한 검토

否定副詞 ‘아니’가 過度 分綴 및 過度 中綴 表記인 ‘안이, 안니’를 거쳐 ‘안’으로 나타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形態 變化 過程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아니’가 ‘안’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정부사 ‘아니’의 다양한 形態들은 長型否定文과 ‘X 아

13) 이 표는 否定敍述語 ‘아니ㅎ-’와 ‘-느-’와 직접 결합 뿐만 아니라 ‘-느-’가 포함된 어미, 예를 들면 ‘-네’와 같은 어미도 포함시켰다. 또한 표기상 ‘앓는’과 같이 나타나는 예들도 모두 ‘안’ 유형에 포함시켰다.

니 ㅎ-’ 구문에서 먼저 발견된다. ‘안’의 形成이 ‘아니’만의 문제라면, 구문에 따른 이와 같은 時差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안’의 形成이 否定副詞 内部에서 먼저 일어났다면, ‘안’의 出現은 單型否定文에서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정부사 ‘안’은 否定敍述語 ‘아니ㅎ-’의 下位 成分인 ‘아니’가 ‘안’으로 축소된 것에 類推되어 變化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 이 같은 가능성에 기초한다면, 否定副詞 ‘아니’의 다양한 형태들, 즉 ‘안이, 안니, 안’과 같은 형태들이 모두 長型否定文과 ‘X 아니 ㅎ-’ 구문에서 먼저 발견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否定敍述語 ‘안ㅎ-’의 존재는 ‘아니ㅎ-’가 ‘않-’으로 確立되는 再構造化 過程이 둘로 나누어짐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아니ㅎ-’가 ‘안ㅎ-’로 되는 것으로서 合成語의 下位 成分인 ‘아니’가 ‘안’으로 축소되는 過程이다. 두 번째는 ‘안ㅎ-’가 ‘않-’으로 되는 것으로서 ‘ㅎ-’가 서술어로서의 성격을 잃고 語幹末 音韻 ‘ㅎ’이 되는 過程이다. 첫 번째 過程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세기 말에 나타나며, 두 번째 과정은 <표 2>와 <표 3>을 통해 드러나듯이 19세기에 나타난다.

‘안ㅎ-’가 ‘않-’으로 變化하는 두 번째 과정은 단어 내부에 ‘ㅎ-’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단어들의 再構造化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세국어에서 ‘만ㅎ-, 올ㅎ-, 슬ㅎ-, 곧ㅎ-’ 등은 近代國語 時期에 각각 ‘맏-, 옴-, 씼-, 갈-’과 같은 形態와 共存하다가 現代國語에 ‘맏-, 옴-, 씼-, 갈-’과 같은 형태로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再構造化는 ‘아니ㅎ-’가 ‘않-’으로 되는 과정과 유사한 것이다(이현희, 1994 : 62).

그러나 이 예들과 ‘아니ㅎ-’는 單語의 性格에 차이가 있다. 위의 예들은 모두 單一語인 반면,¹⁵⁾ ‘아니ㅎ-’는 合成語이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14) 이현희(1994 : 62~4)에서는 否定副詞 ‘안’이 ‘아니’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정서술어 ‘않-’에서 재분석되어 나타났다고 하면서 ‘*안ㅎ-’와 같은 否定敍述語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한 바 있다. 본고는 부정부사와 부정서술어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앞의 논의와 같지만, 그 논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15) 물론 ‘곧ㅎ-’의 경우는 기원적으로 副詞 ‘곧’과 ‘ㅎ-’의 合成語이다(이기문, 1972:16). 그러나 ‘곧ㅎ-’의 内部 構造는 이미 中世國語에서부터 단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안병희, 1978 : 84 ; 김정아, 1998 : 84~86).

‘아니ㄴ-’가 이들의 再構造化 過程에 類推될 수 있었던 것은 1단계의 재구조화를 거친 ‘안ㄴ-’가 이 단어들과 유사한 外形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ㄴ-’가 이와 같은 類推의 단계, 즉 2단계의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先行的으로 言衆들의 認識 變化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바로 부정서술어 ‘안ㄴ-’를 單一語에 가까운 緊密合成語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않-’의 形成은 ‘아니ㄴ-’의 單語構造에 대한 言衆들의 認識 變化와, 비슷한 시기에 1音節 語幹으로 再構造化 되었던 다른 單語들에 類推된 結果라고 할 수 있으며, ‘안’의 形成은 부정서술어 ‘안ㄴ-’의 成立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정부사 ‘아니’와 부정서술어 ‘아니ㄴ-’의 密接한 關係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사 ‘아니’에 근거하여 형성된 合成語 ‘아니ㄴ-’가 逆으로 어기인 본래의 單語 變化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IV. 結 論

본고는 부정부사 ‘아니’와 부정서술어 ‘아니ㄴ-’가 ‘안’과 ‘않-’으로 再構造化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들의 재구조화 時期와 그 影響 關係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現代國語의 부정부사 ‘안’과 부정서술어 ‘않-’은 각각 中世國語의 否定副詞 ‘아니’와 부정서술어 ‘아니ㄴ-’에서 再構造化된 것이다. 이들의 再構造化는 否定敍述語에서 먼저 시작된다. 부정서술어 ‘아니ㄴ-’의 再構造化는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의 재구조화는 18世紀 末부터 시작된다. 그 결과 ‘아니ㄴ-’에서 變化된 ‘안ㄴ-’가 나타나며, 그 이후 19世紀에는 2단계의 再構造化가 시작되어 ‘않-’이 나타난다. 2단계의 再構造化 過程은 부정서술어의 構造的 性格에 대한 認識의 變化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過程은 近代國語 時期의 單一語들이 보였던 재구조화의 과정에 類推된 것으로서 이 같은 유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정서술어가 單一語에 가까운 緊密合成語로 認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서술어의 이 같은 再構造化에 영향을 받아 부정부사 ‘아니’는 ‘안’으로 재구조화하게 된다. 부정부사의 재구조화가 부정서술어의 재구조화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정부사 ‘안’의 형태가 ‘X 아니 ㄴ-’ 구문과 長型否定

文中에서 발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單型否定文에 나타난 ‘안’은 否定敍述語의 再構造化가 거의 完成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에서야 발견된다.

◇ 參 考 文 獻 ◇

- 김완진(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학술원 논문집> 20, 대한민국 학술원, pp.91~115.
- 김정아(1998), 『中世國語의 比較構文 研究』, 태학사, pp.84~6.
- 김창섭(1997), 「合成法의 變化」, 『國語史 研究』, 태학사, pp.815~840.
- 류광식(1990), 「15世紀 國語 否定法의 研究」,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pp.25~26.
- 안병희(1978), 『十五世紀 國語의 活用語幹에 대한 形態論的 研究』, 탑出版社, p.84.
- 이기문(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p.62.
- _____(1977), 『國語音韻史研究』, 탑出版社.
- _____(1978), 『改訂版 國語史概說』, 탑出版社.
- 이진호(2003), 「音韻論的 시각에서 본 中世國語 合成語의 緊密性」,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pp.201~228.
- 이태욱(2001), 『15世紀 國語 否定法 捐軀』, 보고서.
- _____(2001), 『16世紀 國語 否定法 捐軀』, 보고서.
- 이현희(1986ㄱ), 「中世國語의 用言語幹末 ‘-ㅎ-’의 性格에 대하여」, 『國語學新研究』, 탑출판사, pp.367~378.
- _____(1986ㄴ), 「中世國語 內的 話法의 性格」, <한신논문집> 3, 한신대, p.29.
- _____(1994), 「19世紀 國語의 文法史的 考察」, <한국문화> 1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pp.62~4.
- 허 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허재영(2002), 『否定文의 通時的 研究』, 역락.
- 허철구(1997), 『國語의 合成動詞 形成과 語基分離』,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pp.150~6., pp.160~4.

■ ABSTRACT

The Formation of Negative Adverb ‘안’ and Negative Predicate ‘않-’

Lee, Ji-young

Negative adverb ‘안’ and negative predicate ‘않-’ in Modern Korean is reconstructed from negative adverb ‘아니’ and negative predicate ‘아니ㄴ-’ in Middle Korean toward the 19th century. The reconstruction of them is not irrelevant but interactive, which resulted from the various alternation of the negative predicate.

The reconstruction of the negative predicate ‘아니ㄴ-’ is composed of two levels. In the first level, ‘아니ㄴ-’ is changed to ‘안ㄴ-’ in the late 18th century. This process affected the appearance of the negative adverb ‘안’ in the 19th century. The appearance time of ‘안’ is various according to the grammatical constructions, which shows that the reconstruction of ‘안’ is relevant to the reconstruction of negative predicate. In the second level, ‘안ㄴ-’ is changed to ‘않-’ in the 19th century. This process is analogiz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simple word, which shows that ‘안ㄴ-’ is recognized as the strict compound.